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광현  
전화 053-740-4230 / 팩스 0502-193-5504

# 보도자료

2025. 1. 16.(목)

## 제목

### 대구·경북지역 마약범죄 집중 수사 결과 - 마약류 사범 785명 단속 / 필로폰 3.2kg 등 마약류 대량 압수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력하여 관내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 2024. 1. ~ 12.까지 1년간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사범, 마약류 투약 사범 등 **총 785명을 단속(검찰 단속 258명, 구속 24명)**하고,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입·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주요 수사 사례

- ▶ 2024. 7.경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합계 18억원 상당의 필로폰 1,951.54g 및 야바 80,840정을 진공포장한 후 가방 내·외피에 은닉한 다음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1명 구속 기소
- ▶ 2023. 12.경 인천 지역 ○○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태국에 있는 마약류 발송책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가액 1,154만원 상당의 필로폰 38.46g을 커피봉지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3명 구속 기소
-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감시가 소홀한 농촌지역을 배송장소로 지정
- 태국에서 필로폰 발송을 담당한 마약류 발송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송환

▶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 SNS를 통해 필로폰을 손쉽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고등학생 1명 구속 기소

-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모두 인터넷 도박, 명품 구입 등 유흥비로 사용

● 검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마약류의 확산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마약류 밀수를 빙자한 사기 범행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범행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에도 힘써 마약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I 개요

● 대구지방검찰청은 2024. 1.부터 2024. 12.까지 1년간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함께 지역 내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85명의 마약사범을 단속(구속 146명)하고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등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하였음

※ 2024년 대구 지역 마약사범 단속 현황

전체 단속인원(구속인원)	검찰 단속인원(구속인원)
785명 (146명)	258명 (24명)

※ 2024년 대구 지역 마약류 압수 현황

구분	검찰	경찰, 세관	총합
필로폰(g)	3,191.03	23.71	3,214.74
MDMA(정)	2,703	1,285	3,988
케타민(g)	193.35	131.96	325.31
야바(정)	129,182	37	129,219
대마(g)	0	6,648.67	6,648.67

## 1. 현황

- 외국에서 대구 지역으로 밀수입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국제우편·국제특송 화물 등의 수단을 통하고 있으나, 대구국제공항을 통하여 직접 밀반입을 시도한 사례도 적발됨
- 밀수입되는 마약류의 종류 또한 필로폰,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류에서 야바\*, MDMA\*(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사일로신\*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

\*야바(YABA) : 필로폰에 카페인 등의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정제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최근 국내체류 중인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인들을 통하여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

\*MDMA : ‘엑스터시’, ‘캔디’ 등으로 불리며 유흥업소, 클럽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

\*사일로신 :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환각물질로,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의 입문 마약으로 불리고 있음

## 2. 주요 수사사례

### □ 미국발 대마 및 사일로신 함유 제품, 불가리아발 엑스터시 밀수사건(2명 구속 기소)

- A(31세), B(35세), C(36세)는 공모하여,
  - 2023. 5.경 미국에서 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대마 및 사일로신 함유 제품 1.5kg을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
  - 2023. 6.경 불가리아에서 노트북 스크린 패널 안에 엑스터시(MDMA) 665정을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하려 하였으나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
-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C가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를 발송하고 A, B가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한 여죄를 적발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불가리아 세관으로부터 엑스터시 밀수 범행 관련 추가자료 입수
- B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으나 2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검거하였고, B의 조사 과정에서 A도 밀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 냄
  - ※ A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B는 1심 재판 진행 중임
  - ※ C는 현재 필리핀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필리핀에서 국내로의 송환절차를 진행 중임

<A, B, C가 밀수입한 대마 및 사일로신 함유 제품, 엑스터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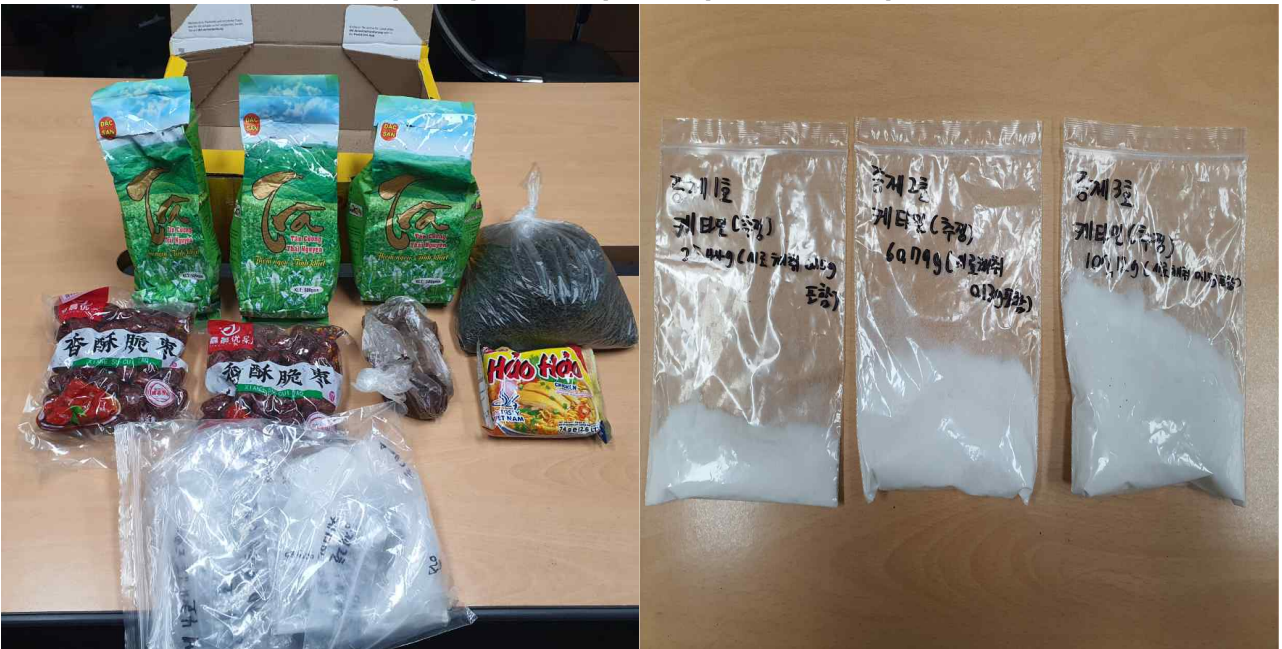
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장난감과 함께 은닉된 마약류 제품 및 노트북 패널 안쪽에 은닉되어 있는 MDMA 사진

□ 독일發 케타민 및 엑스터시(MDMA) 밀수사건(1명 구속 기소)

- D(25세, 베트남 국적)는 2024. 7.경 독일에서 가액 합계 2,400만원 상당의 케타민 193.35g 및 엑스터시(MDMA) 200정을 식료품 안에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

※ D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

<D가 밀수입한 케타민과 MDMA 사진>



케타민과 MDMA를 식료품과 함께 포장하여 은닉한 모습

## □ 태국發 필로폰 및 야바 밀수사건(1명 구속 기소)

● E(24세, 태국 국적)는 2024. 7.경 태국에서 가액 합계 18억원 상당의 필로폰 1,951.54g 및 야바 80,840정을 진공포장한 후 가방 내·외피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

- E는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내용물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밀수 범행을 규명함

※ E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

### <E가 밀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 사진>



가방 내·외피에 진공포장한 필로폰과 야바를 은닉한 모습

## □ 독일發 엑스터시(MDMA) 밀수사건(1명 구속 기소)

● F(10대 청소년, 베트남 국적)는 2024. 7.경 독일에서 가액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 2,002정을 영양제 통 안에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

- F의 부탁을 받아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한 참고인의 진술, F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F의 밀수범행을 명백히 규명

### <F가 밀수입한 MDMA 사진>



플라스틱 영양제 통 안에 MDMA를 은닉한 모습

□ 캐나다發 필로폰 밀수 사건(1명 구속 기소)

- G(37세)는 2024. 9.경 캐나다에서 가액 합계 3,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95.18g을 캡슐에 소분하여 식초병 안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
- G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추적 중임

<G가 밀수입한 필로폰 사진>



필로폰을 캡슐에 담아 소분한 다음 사과식초 병에 넣어 은닉한 모습

□ 태국發 필로폰 직접 밀반입 사건(1명 구속 기소)

- H(29세)는 2024. 11.경 태국에서 필로폰 396.54g을 비닐지퍼백에 소분하여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
- 대구국제공항에 신규 설치된 신변검색기를 활용하여 H의 신체에 이상물체가 부착되어 있음을 감지하여 현장에서 H를 검거함
- H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포싱, 로맨스 스캠 등 범행을 저지르다가 국내로 귀국하여 '고수익 알바' 등을 찾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고수익을 제안받아 본건 밀수 범행에 이르게 됨

<H가 밀수입한 필로폰 사진>



신체에 부착하여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 모습

## □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필로폰 밀수 사건(3명 구속 기소)

- L(44세)는 인천 지역 ○○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M, N 등과 공모하여 2023. 12.경 태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가액 1,154만원 상당의 필로폰 38.46g을 커피봉지 등에 은닉하여 밀수
  - M, N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감시가 소홀한 농촌지역을 배송장소로 지정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으나, 우리 청 수사관들의 추적에 의하여 검거됨
- ※ M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이고, N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
- M의 진술,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태국에 거주하면서 필로폰을 발송한 L을 특정하여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송환
  - L은 태국 현지 수용소에 수용중일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태국 이민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스마트폰을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음

### III

## 마약류 유통 범죄

### 1. 현황

- 최근의 마약류 거래는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을 탈피하여 SNS 등을 통하여 유통 및 매매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단속 및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마약류의 검색 및 구입이 손쉬워짐에 따라 지역 내 유흥업소, 클럽 등을 중심으로 MDMA, 케타민 등 ‘클럽마약’의 유통 급증
- 대구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활동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
- 대구·경북 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야바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다음 노래방 등 외국인 상대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삼아 이를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급속히 증가

## 2. 주요 수사사례

### □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 사건(6명 구속 기소)

- 마약류 판매상들은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의 SNS를 통해 고액의 수익을 미끼로 마약류 운반 및 유통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일명 '드라퍼')를 모집
- 유통책들은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의 마약류 은닉장소를 송부받아 수거한 후 소분·포장하여 이를 불특정 장소(건물 앞 화단,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등)에 다시 은닉한 다음 그 장소(일명 '좌표')를 판매상에게 회신
- 판매상들은 SNS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고 연락한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입금, 가상화폐 등의 수단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위 좌표를 송부하여 주어 수거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유통 및 판매가 전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구지검은 2024년 1년 동안 위 마약류 유통책(드라퍼) 6명을 구속 기소하고, SNS를 통한 마약류 매수자 68명을 불구속 기소함

#### <아파트 화단 등에 은닉되어 있는 마약류 사진>



### □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필로폰 유통 사건(2명 구속 기소)

- O(41세)는 대구 지역 OO파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마약류 매매 등에 관여하던 중, 2024. 8.경 가액 2,983만원 상당의 필로폰 99.45g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
-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제보를 토대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O를 현장에서 검거한 후 O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전달책도 추적하여 검거함



## □ 대구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사건(2명 구속 기소)

-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클럽의 MD인 I(28세), J(25세)는 2023. 3. ~ 5.경 사이에 클럽에 출입하던 20대 초·중반의 손님들인 K(25세) 등 9명을 상대로 케타민을 판매하고, 위 J 등은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을 투약
  - ○○클럽은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클럽으로 알려져 있으며 I는 ○○클럽에서 마약류 투약을 원하는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옴
  - I는 이전에도 ○○클럽에서 케타민을 판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 지역 소재 외국인들의 마약류 조직적 유통 사건(1명 구속 기소)

- P(37세, 베트남 출신 귀화자)는 2023. 12. ~ 2024. 7.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산시 소재 ○○노래방에 출입하는 베트남인인 Q, R 등을 상대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024. 7.경 위 노래연습장 창고에 가액 2,793만원 상당의 케타민 96.12g, 엑스터시 65정을 보관
  - P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베트남 노래방, 식자재 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매수를 원하는 노래방 고객 등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매도함

※ P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

## IV 마약류 범죄로 인한 2차 범죄

### 1. 현황

-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사용자에게만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 마약류의 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등 다양한 2차 범죄로 이어져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 2. 주요 수사사례

### □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건(2명 구속 기소)

- S(40세)는 대구 지역 ○○파 조직폭력배로서 2024. 7.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
- T(54세)는 2024. 9.경 필로폰 불량량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그 중 1대는 폐차)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

### □ 고등학생이 필로폰 밀수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2명 구속 기소)

- U(17세, 고등학생)는 2023. 4.경부터 2024. 4.경까지 필로폰 밀수자금을 제공하면 필로폰을 밀수한 후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5억 3,815만원을 편취하고, 2024. 3.경 필로폰 밀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SNS를 통해 매수한 필로폰 5g을 피해자에게 제공
  - 피해자가 대량의 필로폰 거래를 제안하며 샘플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 필로폰 제공 범죄로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휴대전화 및 계좌 분석 결과 피해자가 T와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시도한 정황 확인
  - U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더욱 믿게 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구한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 명품 구입 등 유흥비로 사용

## V

###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나, 단순 투약사범 및 자수자 등에 대하여는 치료 및 재활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2024. 1. ~ 12. 중 총 25명의 매수·투약사범에 대하여 교육 및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그중 4명은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에 근거하여 기소유예 처분함으로써,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

####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 -

- ▶ 마약류 투약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부 유관부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민간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하여 연계모델을 구축
- ▶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
- ▶ 2023. 6. ~ 11.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4. 4.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중

- 앞으로도 2024. 4.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사범-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투약사범들의 마약류 사용 근절 및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VI

### 최근 마약류 범죄 현황

#### 1. 대구·경북 지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대구 1,118명, 경북 1,137명으로 5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94.4%, 83.9%가 증가하는 등 마약류의 확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심각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기 간 \ 구 분	전국	대구		경북	
	단속인원(명)	단속인원(명)	점유율(%)	단속인원(명)	점유율(%)
2019년	16,044	575	3.6	618	3.9
2020년	18,050	551	3.1	769	4.3
2021년	16,153	425	2.6	590	3.7
2022년	18,395	521	2.8	758	4.1
2023년	27,611	1,118	4.0	1,137	4.1

## 2. 대구·경북 지역 마약류 압수 현황

- 대구·경북 지역의 마약류 압수 규모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지역 마약류 압수 현황〉

기 간 \ 구 분	필로폰(g)	대마(g)	야바(정)	MDMA(정)	케타민(g)
2019년	1,867.12 (1,572.58)	3,134.42 (3,093.33)	27,252 (407)	772 (0)	20.52 (0)
2020년	2,740.66 (199.19)	761.85 (215.28)	9,064 (25)	795 (0)	111.30 (0)
2021년	7,175.59 (337.36)	2,665.44 (2,665.44)	28,955 (772)	7,299 (5787)	2,853.54 (1767.89)
2022년	9,276.30 (1,379.68)	218.84 (218.59)	23,436 (3,226)	16,691 (5,365)	2,033.33 (559.46)
2023년	1,690.53 (595.33)	1,653.53 (1,653.53)	44,816 (712)	2,710 (132)	1,387.89 (69.15)

※ 괄호 안은 경찰 압수물임

## 3. 청소년 및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 증가

- 대구·경북 지역 마약사범 중 10대 청소년은 2019년 5명에서 2023년 67명으로 13.4배 증가하였고, 외국인 또한 2019년 102명에서 2023년 215명으로 2.1배 증가하는 등 청소년과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 또한 급증하는 추세임

## 1. 지역사회 내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을 원천 차단

-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범죄는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또한 마약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반입량 또한 증가
- 대구지방검찰청은 지역 내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을 적극 수사하여 2023년 319명, 2024년 258명을 직접 단속하고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마약류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

☞ '21. 1. 이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였으나, '22. 9. 10.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유통 범행도 직접수사가 가능해 짐

※ 다만, 마약류 단순 투약·소지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곤란

- 이와 함께 경찰·세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 사범들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마약류의 지역사회 내 유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

## 2. 마약류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보호

- 최근 대구·경북 관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범죄자 및 범죄건수의 증가 뿐만 아니라 그 범죄형태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
  - 마약류 밀수·유통·투약의 전 과정이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은밀하게 진행됨
  -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밀수하여 외국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유통
  -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층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해당 업소에서 직접 투약하기도 함

- 뿐만 아니라 마약류 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2차 피해의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여 마약 범죄가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이 확인됨
- 검찰은 경찰, 세관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의 수입·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는 한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에도 힘씀으로써 마약류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을 보호함

## VII

### 향후 계획

-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대검찰청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범행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류를 원천 차단하고, 마약사범들이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여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